

## ■ 2024년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심의 총평

### 1. 시각예술 창작산실(개인 및 단체)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시각예술 창작산실(개인 및 단체)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23.11.30(목) 13:3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2차 인터뷰) 2023.12.7(목)~12.8(금) 9:30 /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명 : 김정연, 김희진, 남인숙, 유원준, 이현

####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본 사업은 시각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그간 세세하게 분류된 지원 형식 때문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개선했다. 2023년까지 우수 전시, 비평, 중견 작가 프로모션 기획, 공간 등으로 나뉜 사업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최대한 단순화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작가, 비평가, 기획자, 공간 운영자, 매체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삼아 전시부터 행사, 출판, 워크숍, 심포지움까지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지원한다. 예산 또한 기존의 유형별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신청자가 지원 규모별로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주체자가 구상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소규모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중규모 3천만 원 이상~7천만 원 미만, 대규모 7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다.

####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심의와 2차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1차 서류 심의에서는 <시각예술 창작산실> 범주에 비평, 중견 작가 연구, 전시 지원, 공공예술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각 사업의 차이와 목적을 감안하여 비교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원서 작성의 충실도가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계획을 제안한 사업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사업의 현실 가능성은 예산안의 현실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사업이 구체성을 띠는 경우, 예산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차 인터뷰 심의는 모든 위원이 신청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원별로 신청안을 미리 배분받아 꼼꼼히 살펴본 후, 화상 인터뷰로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1차 지원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여러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훌륭한 지원서가 훌륭한 활동 계획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터뷰 심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위 방침에 따라 신청액 3천만 원 미만의 1차 선정 사업들은 인터뷰 심의 대상에서 면제되었고, 1차 서류 심의 점수를 기반으로 2차 심의를 거쳤다. 2022~2023년도

전시사전연구 및 창작의과정 사업 선정자의 경우 기존 주제와의 연관성을 우선으로 검토했으나, 주제의 확산과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그 연관성에 예외적인 가점 혹은 감점의 기준을 두지는 않았다. 1, 2차 전 과정의 심의를 시행한 결과, 신중한 검토를 거친 각 위원의 개별 평가에 편차가 크지 않았기에 별도의 조정 없이 원만하게 합의 되었다.

그 결과 2024년 <시각예술 창작산실>에서는 총 140팀의 신청자 중 우수성, 수월성, 파급력, 지역 안배 등을 기준으로 총 20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지원자들이 제시한 프로젝트의 성격이 개인전, 기획전, 출판 등으로 다양한 만큼, 하나의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기보다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입체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심의하려 노력했다. 무엇보다 사업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주요 고려사항은 사업 계획안의 충실성과 차별성, 계획과 일치하는 예산안의 합리성,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책임성, 사업의 기대 효과 등으로 모아졌다. 또 프로젝트 기반 기획의 경우 해당 기획이 지닌 예술적 의미와 공공성 확보 여부를 주요하게 살폈다. 대다수의 사업 계획안이 유사한 대상에 집중되기보다 주제, 장르, 지역별로 개성 있게 나뉜 점도 흥미로웠는데, 지역의 창작자들이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또 예술계에서 특히 취약한 비평 활동의 계획안을 존중하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2024년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 팀들이 선택한 사업 예산은 중규모(3천만 원 이상~7천만 원 미만)가 가장 많았다. 위원들은 최종 지원 규모의 삭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보다 예술위가 운용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자들의 희망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의했다. 최종 선정된 팀들의 경우 창의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편 타당한 예산안을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본 사업이 일회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던 주체들은 사업을 관성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매해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을 기획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 **소회 및 당부사항**

대부분 지원서들이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으며, 정교하게 설계되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특히 사업 추진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신청서별로 그 개념 이해와 요율에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상당히 충실히 기술되어 한국 미술계에 올바른 인식이 공고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원자가 많았으며 학제 간, 기술 시대, 공진화의 관점, 이에 따른 새로운 관계 설정 등 동시대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맹목적으로 유행을 좇기보다 국제

적인 감각에 동참하려는 시대정신과 노력이 한국 미술계에도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몇몇 젊은 창작자들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포용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인상 깊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 미술계가 더욱 다채로운 담론 생성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 사업 계획 충실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데 비해 각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객 개발, 위기 관리, 예술계에의 파급력, 기대 효과 부분은 대부분 신청서가 미흡했다. 창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그 창작 결과의 운영과 수용에도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안이 미흡한 신청서도 많았다. 무엇보다 결과물의 예상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신청서가 있었으며, 사업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지원서상에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서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작가의 개인전의 경우, 해당 기획이 어떠한 점에서 창의적 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시도들이 어떻게 공공 지원의 의미를 확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2023년도 전시사전연구 및 창작의과정 사업 선정자의 경우, 1차 리서치 과정이 2차에서 심화되기보다 연구 주제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일부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사전연구사업의 기수혜자들이 <시각예술 창작산실>에 응시하는 경우, 앞선 사업의 성과 평가를 선행하고 심의에 반영하는 비율을 지정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 2. 시각예술 창작산실(공간)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시각예술 창작산실(공간)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23.12.1.(금) 13:30~18: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2차 인터뷰) 2023.12.11.(월)~12.13(수) 09:30~18: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 : 고원석, 김영동, 박우찬, 정세라, 최태만

###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구현을 지원하여 예술 작품 창작 활성화 및 예술 향유 기반 마련의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특히 창작산실 공간 유형은 한국 동시대 미술의 활성화와 발전을 이끌어 갈 의지가 분명하고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술 공간의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국의 많은 예술 공간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사

업을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성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경계를 허물고 동시대 현대미술에서 유의미함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술 공간을 운영하며 지역 예술에 기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지원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창작산실 공간 유형은 신청 주체의 사업 규모를 소-중-대규모의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며, 소규모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의 지원 사업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이 완료되고, 중규모와 대규모의 공간 유형은 신청 예산이 최대 1억원으로 높은 만큼 1차 심의 후 선정된 공간 운영자들의 2차 인터뷰를 통해 지원에 대한 적합성을 다시 판단하였다. 2차 심의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신청자의 공간 운영과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발표와 심의위원들의 심화 질의를 통해 신청자의 답변으로 그 내용의 구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먼저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사업에 대한 서류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마다 주요하게 2인의 심의위원들이 먼저 핵심 질문을 한 후, 여타 다른 심의위원들이 필요에 따라 추가 보충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어진 인터뷰 심의 시간이 각 운영 주체별 15분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압축적으로 필수 확인 사항들을 매우 충실히 살폈다는 점을 밝힌다.

그 주요 내용은 신청서를 중심으로 신청자와 공간 운영 주체의 사업에 대한 역량 문제와 사업 규모에 적합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서에 적시한 사업의 계획이 주어진 사업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판단하였고 책임 있는 공간 운영의 전제가 되는 예산 집행 계획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더불어 공간 운영 목표와 계획된 사업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예술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예술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공간 운영 주체들과 구성원들 역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전제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문화 공간이나 소규모 작은 예술 공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려고 분투하고 있는 운영 비전의 진정성과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였다. 상대적으로 여타 지속성을 전제하는 공간 운영의 재원 마련의 기회가 있는 대규모의 예술공간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전제한 사업 역량과 의지 및 개방성을 전제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창작산실 공간 유형은 지원자가 해당 연도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시된 계획안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그것이 적절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신청자(기획자)와 참여자의 수행 전문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책임성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인력구성과 추진 전략, 예산편성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수행 결과가 예술 현장에서 시의적절하게 그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 구성원과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술인과 참여자 사례비와 고용보험 적용의 여부를 책임 있게 보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각 심의 단계에서 전체 심의위원들은 대면 회의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였고 그 내용이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사업의 성격이 새롭게 규정된 만큼 전체 심의위원들은 책임감과 공명심을 가지고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균형 있게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예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으며, 예술 지형도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인프라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 예술 생태계 지원 확대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체계를 분리하여 공모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선정된 공간과 운영 주체는 기획안을 통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고, 공간 성격과 사업의 적합성 역시 충분히 확인되었다. 또한 그간 기존 사업의 수행 궤적을 통해 미술 현장에서의 파급력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거나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들이다. 각 운영 주체의 전문성을 전제한 매개자의 역할에 의미 있는 활동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예술가의 창작 자체 지원과 창작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전시를 통한 기회 창출, 신진 작가 발굴, 중견 작가 지원 등 그 범위 또한 공간 운영 비전에 맞추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서에 적시된 예술가와 비평가의 비평 매칭이나 출판 기획에 대한 부분도 공통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카이브 리서치에 대한 결과가 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판으로 이어지는 제안을 통해 그것이 새로운 매개 활동으로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획 이슈를 전제한 운영 비전이 다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각 공간 운영 주체의 자기 확신에 기반한 추진 계획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졌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나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이더라도 지원 기금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 배분에 규모와 사업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여타 소규모 공간 지원과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모든 선정된 공간과 운영 주체들의 책임 있는 활동을 전제한 예술 현장에서의 유의미한 기여를 예측할 수 있었다.

#### **소회 및 당부사항**

이번 공간 유형 심의에서는 창작 사례비, 공간 운영의 자생력 확보, 지역 분배를

통한 예술 생태계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먼저 창작 사례비에 관한 주체별 상이한 인식과 적용 기준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창작 사례비, 예술가 참여비, 비평 원고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임의로 산정되어 있고, 그 기준이 대체로 현실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자체 예산 공간의 규모나 기획 내용과는 무관하게 예술가의 참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인건비나 일반 수용비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구체적 역할이 기획안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 집행 계획도 현실감 있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또한 비평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예술가의 창작 사례비 기준에 대한 인식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평의 확장이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의례적인 차원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운영 주체나 기획자들에 의해 개선되길 희망한다.

그 다음으로는 공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원 마련과 자생력에 대한 문제에서 자체 기존 상업적 활동과 비영리 활동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지점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창작산실 사업 지원의 특성이 공적 자금을 통한 공공성과 개방성 확장에 대한 부분이 판단 중심에 있기에 상업적 활동을 병행하는 운영 주체의 경우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신청자 스스로 투명하게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물론 공모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더 명확한 기준이 공시되어 심의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공간 운영이 공공 기금에만 의지할 수 없기에 상업적 활동과 더불어 공간 운영의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체 재원 수립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점진적인 공모 지원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리 지원 시스템이나 지역 쿼터제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정성 있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비록 이번에는 안타깝게 선정에서 제외된 공간들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간들의 사업계획 내용이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지원의 필요성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제한된 지원 예산으로 인해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그 수혜의 기회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공모에서 다시 한번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공간들은 공공 기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기반하여 운영 계획에 제시한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심의위원 일동